

제24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해운대구의회사무국

2019년 5월 8일 (수) 오전 10시

제24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임시회) 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개회사

1. 폐식

(사회 : 의사팀장 박현주)

○의사팀장 박현주

(10시 01분 개식)

지금부터 제241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명원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모님께 카네이션은 달아드리셨습니까? 부모님의 ‘괜찮다’라는 말은 팩트 체크(fact check)를 해 보면 ‘외롭다’라는 말이고,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주문이면서 동시에 ‘사랑한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이 편해지기 위해 발명해 낸 문명의 이기들이 오히려 갈수록 사람들을 더 바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평일이라 찾아뵙기 어려운 분은 바쁜 중이라도 전화라도 꼭 한 통 하셔서 부모님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안부 전화 한 통에도 부모님은 행복해하십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우리는 오랜만에 난 산불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지만, 홍순헌 구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발 빠른 대응 덕분에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2 (제241회-개회식)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소방대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진화작업에 참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부산시청을 비롯한 인근 구청에서 진화 인력을 지원해 주신 덕분에 산불이 조기에 진화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아 우리 해운대구의 재난 대응과 예방 대책에 문제가 없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강원 도민들을 위한 성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산시·구·군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제241회 임사회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구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심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오는 5월 24일부터 4일간 모래축제의 시작과 함께 우리 해운대는 본격적인 축제의 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민관과 함께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풍성한 명실상부[名實相符]한 명품 관광도시 해운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5월부터 해운대는 상춘객과 피서객들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시설물 관리를 잘하셔서 안전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후 초파일에 오시는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현주

이상으로 제241회 임사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폐식)